

日本圖書館界를 둘러 보고

國學大學圖書館 朴 昌 圭

머 리 말

日本에 가서 圖書館學을 研究하고 歸國 했을뿐 아직 旅裝도 풀기前에 編輯室로부터 原稿請託을 받고 좀 躊躇했으나 韓國人으로서 日本圖書館協會의 招請을 받은 것이 처음이니만큼 敢히 붓을 들어 日本圖書館界의 이모저모를 보고 느낀대로 大略 紹介하려 한다.

日本圖書館協會를 보고

現在 日本圖書館協會는 東京 上野公園內 國立國會上野支部圖書館(옛 帝國圖書館)內에 있는데 建物은 古屋이나 職員數나 事業의 規模는 韓國圖協과는 面貌가 달랐다. 理事長은 現國立國會圖書館副館長인 岡部史郎氏이고 全般的責任者는 有山崧(Ariyama, Takesi)專務理事兼事務局長이며 員數는 正式職員 21名에 臨時職員을 聯合하던 約 30名假量이다. 첫 印象으로는 局長以下 全職員이 謙遜하고 責任感이 強해 보였고 매우 熱誠의이다.

總務 調査統計 事業等의 三部署로 나뉘 있으며 自立精神이 濃厚했다. 日本文部省의 補助金받기를 拒否하고 있다. 그 理由인즉 年間 2千餘萬圓以上の 總豫算中에서 不遇 幾百萬圓의 補助를 받고 干涉을 받기 싫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 反面 協會費 補充을 爲해서 事業部의 猛活躍이 要請된다는 것이다. 事業部에서는 圖書館學에 關한 數十種의 諸般出版物(日本十進分類表 目錄規則 件名標目表 圖書館 핸드북等)을

出版하며 各公共圖書館의 購入圖書를 直接 出版社와 特約하고 分類 및 目錄 카드까지 作成하여 定價보다 一割싸게 해서 頒價하고 있었다. 또한 圖書館이 新設되는 境遇에는 該當圖書館의 圖書全般에 關한 카드作成 分類等의 全作業의 請負를 맡고 自己들의 責任職員과 아르바이트學生을 써서 完全한 圖書室을 整備해주고 거기서 생기는 利益金을 協會費의 一般會計로 編入시키는 것이다. 또한 調査統計部에서는 全國의 圖書館職員名單까지 調査하고 諸般 技術의 補給과 運營面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으며 1949년부터는 每週 1回式 책의 內容 權威 敘述方法 讀者對象等을 一一히 指示하는 選定圖書速報를 年 50회에 걸쳐 發表하고 있다. 月報는 每月 定期的으로 刊行되는데 그 內容도 매우 充實한 것이었다.

東洋大學 夏期講習을 마치고

文部省의 委囑으로 司書 및 司書補의 講習을 實施하는 學校는 東洋大學과 鶴見大學뿐이나(今年부터 大谷大學에 新設) 日本의 各大學에는 圖書館學講座가 없는 學校는 거의 없으며 특히 上野에 있는 文部省圖書館職員養成所는 今年부터 圖書館初級大學으로 昇格한다고 한다. 日本圖協의 總務責任者 管原 俊氏의 案內로 東洋大學 圖書館學研究室을 노크 했더니 主任教授 和田氏와 老教授 武田虎之助氏가 있었다.

여기서 筆者는 協會의 推薦과 老教授의

助言을 필요어 受講이許可된 것이다. 特別 異彩로운 點은 過半數以上이 女子라는 點이었다. 當局者의 말에 依하면 女子志願者가 前年보다 增加했다는 것이다. 學科는 1科目이 1單位인데 15單位(學點)以上을 取得해야 日本圖書館法條에 所定의 司書資格을 認定받는 것이므로 하루 卅박 6時間의 講義를 받아야 했다. 1科目의 總講義時間數가 15時間이며 目錄만은 60時間(2單位), 件名目錄이 30時間인데 每科目當 全出講時間의 5分의 4以上을 受講치 않았으면 應試할 資格을 얻지 못하며 더욱 嚴格한 것은 遲刻 早退의 數分까지 체크한다는 點이다. 設令 試驗을 쳐서 60點以上을 받고 單位를 取得해도 出講時間이 不足할 境遇에는 그 翌年이나 또는 後期에 가서 처음부터 새로 課程을 밟아야 되는 것이다. 講習에는 6個月班과 3個月班의 두 種類로 되었고 筆者가 受講한 것은 3個月班晝間(7月부터 9月末)이었으며 6個月班은 夜間으로써 前後期로 나뉘어서 前期는 4月부터 9月末 後期는 10월부터 翌年 3月末)로 되어있다. 夜間은 1日當 3時間이었고 司書教師의 受講資格은 반드시 敎員資格이 있는 者에게만 許容된다. 受講者의 大部分은 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의 現職者로서 이들은 夏期放學을 利用하여 受講하는 것이며 夏期班定員은 100名이나 前後期の 落伍者와 合하면 約 2百餘名이 同時受講했는데 筆者도 面目을 잃지 않을 程度로 努力한 보람 있어 日本 文部省의 司書資格證을 받았다. 다음 參考로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을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筆者가 受講한 必須科目은 圖書館通論, 圖書館實務, 圖書選擇法, 圖書目錄法, 件名目錄法, Reference work, 圖

書運營法, 圖書館對外活動, 兒童에 對한 圖書館奉仕, 視聽覺資料等이며 司書教師는 學校圖書館通論, 學校圖書館利用指導, 2科目을 더 必修해야한다. 選擇科目으로는 甲群에 있어서 特殊資料, 圖書館施設 圖書館史 3科目中 둘을 擇해야 하며 乙群에 있어서는 社會學 社會敎育 新聞學中에서 둘을 擇해야 한다.

國立國會圖書館을 보고서

講習이 끝나고 日本圖協의 企劃대로 日大明大 早大等에서의 實習을 마치고 國會圖書館을 찾아서 約 2週間에 걸쳐 運營全般의 事項을 研修하였다. 國立國會圖書館法이 昭和 23年 2月9日에 制定되었고 36年 12月末現在의 總藏書數는 270萬卷이고 年間 11萬卷씩 增加된다는 것이다. 館長 副館長 밑에 六部(總務, 收書, 整理, 閱覽, 連絡 建築)一局(調査及立法考査)에 40課와 12 調査室에 國會分館 上野支部圖書館 靜嘉堂文庫 東洋文庫外에 行政 司法 各部支部圖書館(30館)이 있으며 職員數 約 800名에 1年 總豫算 8億圓(韓貨 約 2千8百8拾 萬圓)이다. 館長은 大臣待遇를 받고 있으며 圖書館의 新築의 規模나 施設面과 奉仕面은 이루形言키 어려웠다. 甚至於 會議室, 홀, 議員休憩室, 圖書請求用인, 管送氣裝置, 自動運搬機, 카-드印刷機등이 諸般視聽覺施設을 보고 크게 感歎하였다. 閱覽席은 3500席中 850席만이 利用되고 閱覽室에는 一般, 特別, 新聞, 雜誌, 科學技術資料, 亞細亞阿非利加資料, 圖書館學資料, 新聞크리핑資料, 國連官廳資料 貴重書, 憲政資料, 法令議會資料, 地圖, 音樂資料等的 13種別로 되어 있다. 入館資格으로는 滿 19歲以上이어야 入館이 許容되며 月平均 入館者가 16,000餘名에 達하

고 午前 8時~午後9時까지 開館한다 職員은 9時부터 4時까지 勤務하며 閱覽部만은 2部制勤務를 하고 있었다. 個人貸出은 許容안되고 國會議員만이 國會分館에서 貸出하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議員아파트에는 巡廻文庫를 設置하고 1個月에 1回式 巡廻하는 것이다. 行政各部의 支部圖書館에도 專門分野의 書籍을 除外한 教養圖書을 亦是 巡廻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司講講習을 實施하여 自體內的 職員의 質的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었다. 特히 連絡部에는 印刷카—드速報를 通하여 全國 各圖書館에서 注文되는 것을 1枚當 2圓式 印刷카—드를 作成하여 配付하며 收書部에서는 納本週報를 1週에 1回式 配付하므로써 全國에서 納本되는 것을 (國會圖書館法 第24條에 依해서 全國出版物이 納本됨) 各圖書館에 알려주고 있었다. 國際課에서는 77個國(460機關)과 資料交換을 하는데 日本에 들어온것은 年間 6,600餘件이고 外國으로 내보내는 것이 年間 5,700餘件에 達하고 있다. 視聽覺室에는 「마이크로 필름」의 提供을 비롯하여 自動現像室, 轉寫室, 現像室, 調合室, 프린트室까지 完備됨은 勿論, 利用者가 自己의 寫眞機와 필름을 가지고 直接復寫할 수 있게끔 照明 攝影臺等 複寫室을 設置해 놓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뿐만아니라 地方議會圖書館의 技術援助와 指導는 勿論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 奉仕體制가 完備된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와같은 國立中央圖書館이 하루 速히 이루어져야 할것을 切實히 느꼈다.

公共圖書館의 發展相

講習과 實習이 끝난後 約 2個月間 各地의 圖書館을 巡訪하면서 한결같이 느낀것

은 圖書館이 利用者를 爲한 完全한 奉仕體制를 갖추고 있다는 點이며 入圖料을 받는 곳은 韓國뿐인것 같았다. 筆者가 1962年 9월에 調査한 바에 依하면 1961年末 現在 日本의 公共館書館數는 (1) 都, 道, 府, 縣立(道立) 本館이 54, 分館 34, (2) 市, 立(郡立) 本館이 391, 分館 25, (3) 區町立(面立) 本館이 177, (4) 村立(里立) 本館이 17. 計 本館 698과 分館 59個이었다.

筆者가 視察한 것은 北으로는 겨우 埼玉縣 栃木縣이고 都立日比谷圖書館을 中心하여 南으로 京都 大阪, 奈良, 兵庫, 九州의 長崎縣까지 보았는데 公共圖書館에는 거의 兒童圖書館과 어머니 文庫가 매우 便利하게 마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特히 兒童圖書館의 司書는 主로 女子가 配置되었는데 司書의 性格과 勤務性까지 參酌하여 配置한 것은 물론이 었다. 그 中 代表的인 圖書館을 紹介하면 大阪府立圖書館의 主題別閱覽室인데 閱覽席總數가 1009席이고 總藏書數는 569,711 卷이며 利用者는 入館時부터 主題別閱覽室로 入館 하게 되어 있다. 이를 主題別로 보면 大阪室(大阪府下의 郷土資料, 法經, 人文科學, 自然科學, 電氣工學(37年度 新設되었으나 이는 日本松下電氣株式會社에서 600萬圓을 喜捨해서 만든것) 學習參考, 新聞, 雜誌, 相談室, 一般圖書閱覽室, 特別閱覽室, 住友文庫室, 陳列室(貴重圖書을 隨時展觀함) 商工資料室 등이 있으나 特히 商工資料室에는 工業中心의 實務의 科學技術情報資料로서 日, 美, 英, 獨, 佛, 스 이스, 벨기 등 7個國의 特許 P.B A.E. C 레—포드 定期刊行物 등이었고 P. B. 에 포—드 76,638件 A. E. C 레포—드 11,123 件(36年現在) 등이 있는데 特히 商標公報

는 1號(明治 33年)부터 現在까지 缺號하나 없이 完備되어 있다는 것이다. 館外奉仕로서 關西文獻 Center 協議會라는 것이 있어서 商工資料室을 中心으로 情報의 提供 關係機關企業體의 利用斡旋을 하고, 館外貸出은 3卷以內 20日間の 貸出을 無料로 하고있는 것을 보았다. 圖書館資料의 寫眞寫寫는 有料로 提供하며 自動車文庫 3臺로써 大阪府下의 全域에 걸쳐 136個所의 停車場을 每月 1回式 巡回하여 利用에 提供하고 貸出文庫는 自動車文庫로서 遠距離의 團體를 對象으로 2個月에 1回式 交換하고 4個所에 配本所를 設置하여 約 6,000餘卷의 一般圖書를 中心으로 奉仕하고 있었다. 筆者는 그 다음날 大阪市立中央圖書館에 들렀다. 新築建物로 建坪 707坪에 延坪 2,076坪이나 되고 現代式 運營面의 開架式을 擇하고 있어서 兒童 및 어머니 文庫 그리고 中, 高, 大 一般 등으로 閱覽室이 區別되었고 特히 感歎한 것은 Reference Service 였다. 筆者가 그 圖書館見學을 마치고 近郊인 城東區에 있는 日本라이드하우스(點字圖書館)에 갈려고 相談室에 電話로 問議했더니 不過 3分만에 回答이 나왔는데 너무나 正確하고 詳細한 것이었다. 두번 車를 갈아타야 하는데 그 距離와 大體의 時間까지 가르쳐주는 데는 感歎함을 禁치 못했다. 어떤 市, 縣立 圖書館 이든지 會議室, 映寫室, 講堂, 小講堂, 食堂等 눈부신 施設과 教育映畫에 對해서까지 徹底한 것에는 대단히 놀랐다.

筆者가 回顧하건데 우리나라 財政面의 困難한 點도 있겠지만 爲政者들의 圖書館에 對한 깊은 認識과 覺醒이 더욱 促求된다.

大學圖書館의 發展相

筆者가 日大, 明大, 早大, 天理大, 國學院大, 國際基督大, 京都大, 神戸醫科大等 十數個大學을 見學했으나 藏書數와 職員의 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一例로 早大圖書館의 職員數는 102名에

아르바이드學生까지 合하면 110餘名이나 되었다. 藏書數는 本館만 75萬卷이 넘었으며 學部圖書館 分館 合하면 100萬卷이나 될 것이며 亦是 明大, 日大도 比等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圖書選定委員會의 活動은 大端히 活發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總長, 大學長, 理事長의 下向式購入은 잇볼수 없고 圖書選定委員은 各科主任教授가 依囑한 先生으로 構成되었고 圖書館에서 豫備調査된 資料 및 各科教授들의 推薦한 書籍을 中心으로 選擇하는 것이다. 參考室의 百科辭典이나 各種 各國의 辭典의 完備나 各圖書의 索引이라든가 各種의 質問에 應答, 萬般의 準備態勢를 갖추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特히 明大 參考室에는 各대-불마다 日, 英, 獨, 佛, 中 5個國의 辭典이 備置되어 있는 것은 그 代表의 例라 하겠다.

그리고 視聽覺室의 完備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複寫室, 轉寫室은 勿論 各國語의 語學用테코드 錄音테이프와 學生들이 自己의 發音을 練習할 수 있도록 個人試聽室이 完備되어 있었다. 映寫室 타이프室 그리고 休憩時間이나 中食時間을 利用하여 名曲鑑賞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마이크-리-더의 裝置 등 거의 完備을 期하고 있었다. 어느 大學이고 新入生을 爲해서 圖書館案内와 要覽이 印刷되어 學生들에게 圖書館利用을 P.R 하는 것이고 甚至於 天然色 "스라이드"로써 圖書館 利用法을 試寫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다. 目錄室에는 和書와 洋書의 區分, 書名 著者名 件名 分類카-드를 配列하여 利用者의 便宜를 돕고 있다.

다음에는 新刊圖書의 紹介와 自習室이다. 圖書館의 책을 利用하는 것보다 所謂 試驗工夫를 하는 受驗生을 爲해서 別途로 室이 定해져 있는 것이다. 新聞雜誌室의 完備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數百種의 國內外의 雜誌가 購入되어 閱覽하게 되고 또 全部 製本해서 保存되며 甚至於 早大

에서는 80餘年前것 부터 保存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現代인 運營을 하는 곳이 國際基督教大學의 圖書館이었다. 藏書는 他大學에 比해서 많지 않으나 全體가 開架式이며 貴重書가 많았고 100席의 書庫內閱覽席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란 지 其他 施設과 一般 라운지 (Reading Lounge)의 設備과 더욱이 Reserve Books가 그러했다. 卽 講義의 參考用으로 特히 教授로부터 指定된 책이다. 一般書架에서 해서 Reserve Shelf에 別置되었고 Circulation Desk를 통해서 貸出된다. Class에서 課해진 Reading Assignment는 거기만 여기에 備置된 資料에 依하여 行하여진다.

그리고 이들의 貸出期間에는 2時間이나 一夜 혹은 2日, 3日等 3種類가 있는데 그 貸出期間이 短縮되는 수가 있다.

全國圖書館大會에 參席하고

圖書館大會는 明治 37年以來 每年開催된 것이며 62年度 大會는 11月13日부터 3日間 栃木縣 宇都宮市에서 開催되었다. 出席人員은 44都, 府, 縣에서 1193名이 參加하였고 첫날은 全體會議로서 開會式에 뒤이어 “圖書館과 나”라는 演題로 家庭主婦가 나와서 利用者의 立場에서 要望事項을 提言했는데 그중에서도 特히 施設面에 言及하여 兒童圖書室便所使用上 어린이들의 不便과 小便器의 清水用防音裝置問題까지 論議가 있었으며 여기에서 兒童圖書館의 施設조차 제대로 가추지 못한 우리의 現實과는 너무나 距離가 멀어진 感이 들었다.

다음 文部省 및 圖協의 派遣으로 歐洲를 觀察하고 돌아온 圖協事務局長의 “歐洲의 圖書館事情”이란 題目의 講演이 있었다.

第2日에는 問題別과 館種別의 會議가 있었는데 大略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問題別로서는 讀書, 圖書館 Information Service의 機能, 整理技術의 새로운 問題點, 地域社會의 變遷과 圖書館奉仕, 圖書館員의 養成, 그리고 圖書館協議會였고,

館種別을 보면 都, 道, 府, 縣立圖書館, 市區町村立圖書館, 學校圖書館, 私立圖書館, 大學圖書館, 短期大學圖書館, 特殊專門圖書館, 議會圖書館, 圖書館利用者等の 諸會議로 나뉘어졌다.

第3日에는 全體會議의 閉會式 N. O. C 賞 施賞式이 있었고 다음에 日光이라는 곳으로 觀光途上에 올랐다. 여기서 筆者가 느낀 點은 大會가 始終一觀 明朗했었다는 點이며 反對를 爲한 反對發言 따위는 들을 수가 없었다. 特히 大會의 名義로된 印刷物配達의 正確과 迅速性을 促求하는 逓信長官에게 보내는 建議書가 採擇되었으며 日本圖書館界는 亞細亞圖書館界의 標本이 되어야겠다는 論議까지 나왔었다는 點을 添言하여둔다.

끝으로 筆者가 巡訪하면서 느낀바는 各圖書館의 奉仕의 精神과 親切性 그리고 圖書館人에 對한 社會的 認識問題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圖書館人하면 罷免이나 左遷감이라는 認識은 그 社會에서는 볼 수 없었고 大學圖書館協議會, 地域圖書館協議會라든가는 學會 研究會等을 통해서 자주 發表會를 갖는 同時에 藏書目錄交換等으로 相互資料交換을 하여 利用者의 諸般便宜를 보아주고 있다. 또 小學校, 中高等學校는 勿論 어느 企業體나 社會團體, 政黨, 地方議會에 讀書 施設이 없는 곳은 없으며 學校教育時節부터 圖書館利用의 慣習을 길러서 社會에 進出된 以後라도 圖書館의 利用을 自由로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筆者가 東京滯在中 어느 電車나 地下鐵을 타든지 新聞, 雜誌, 冊을 아니른 사람을 볼 수 없었고 더구나 그들이 읽는 冊에는 請求番號(라벨)가 붙어있는 것이 많이 눈에 띈었다. 이와 같이 國民들의 讀書熱에 呼應하여 圖書館은 그 뒷받침을 해주고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하루 속히 圖書館法이 制定公布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圖協의 發展을 바라 마지 않는다. (끝)